

## 書 評

## 한국사 연표 편찬의 새로운 모색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사연표』(동방미디어, 2004) -

강 영 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으로 표기)에서는 2004년 8월에 방대한 『한국사연표』 책과 시디롬을 간행하였다. 당초 정문연은 1991년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26(부록)으로 『한국문화사연표』를 간행하였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1년말 정문연과 (주)동방미디어가 『개정증보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 시디롬을 발행하면서 부록으로 『한국문화사연표』의 1차 증보가 이루어졌다 이때 현대사 부분(광복-1997년 말)이 추가되었는데 특히 북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였다. 문장의 표기는 종래의 국한문 혼용에서 벗어나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양권의 특별한 고유명사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간행한 『한국사연표』는 수록 범위를 2002년 말까지로 확충하고 최근의 연구성과와 고고미술사학적 발굴성과를 많이 반영하였다.

먼저, 책의 경우 편집 체제상 현대사 부분이 너무 자세하여 한편의 책으로 묶기에는 기사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실었다. 그 대신 부록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동양 삼국(한국, 중국, 일본)의 제왕 일람표와 연호 일람표 및 연대 대비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동양사와 서양사를 충실하게 정리해서 같은 시기의 세계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쉽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편수 실무를 맡았던 정문연 고대문화연구실장 金昌謙의 말에 의하면 “종래의 간행된 대부분의 연표류가 일본 것을 참조한 까닭에 한국과 관련된 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항에 누락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용상 여러 곳에서 오류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 연표의 체제는 선사시대부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까지는 국내란과 외국란으로(~93쪽), 937년 이후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광복된 1945년까지는 국내란을 다시 정치·문화·사회·경제로 나누고 함께 외국란을 두었으며(~639쪽), 그리고 1946년 이후 최근 2002년까지는 별도로 북한란을 추가하였다(~729쪽). 정치란에는 행정·외교·국방·전쟁·독립운동·인사 등의 관련사항, 문화란에는 문학·교육·예술·사상·체육·언론 출판·문화재·연구·발명 등의 관련사항, 사회란에는 인구·사회운동·자연재해 등의 관련사항, 경제란에는 산업·통계·교통·토목 관련 사항 등을 수록하였다. 한편, 시디롬의 경우 현대사 부분도 원래의 원고 내용을 축약하지 않고 수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다 풍부하다. 더욱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색기능을 두었는데, 내용상 어떠한 단어건 무작위로 검색하여 해당연도와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연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서기년, 단기년, 각 왕조의 제왕명, 연호명 등 무엇으로나 검색하여 필요로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연표 편찬을 독립된 사업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집념을 가지고 다년간 노력하여 학문적인 수준이 높은 연표를 편찬한 예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종합연표인 경우에는 몇몇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한국사연표가 학술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 올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연표편찬사업 추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빠짐없이 참여시키는 일은 당초부터 어려운 일이어서 편찬의 주관자가 소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기왕에 나온 각종 일지나 연표를 선별 정리하고 일정한 자료들을 선정하여 그 내용 중에서 직접 새로운 사항을 추출, 추가하고 각 분야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대개 카드화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건이라도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동일사건이라도 심하면 해를 달리 하여 기재되거나 동일 사항에 대한 호칭이 서로 달라 마치 다른 사항처럼 나란히 기재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게다가 각 분야에 걸친 균형 있는 기사 발굴, 각

중 용어의 통일 문제, 표기방법의 정리 등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소수의 전문가에게 자문 혹은 감수의 형식으로 의뢰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였으나 그 결과는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서평자는 오랫동안 수많은 편찬사업에 참여하였지만 연표 편찬 만큼 들인 노력보다 그 성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별로 없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이 작업에 참여해 본 이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소감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문연의 연표 편찬사업이 비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록의 형식이었으나 처음부터 3명의 전담자를 시대별 전공자로 참여시켜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확실히 진일보한 조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통하여 몇 차례 그 체제와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어 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초판용 부록으로 간행될 때부터 이번에 독립된 책과 시디롬으로 간행될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편수실무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일관된 기준에 의하여 편찬이 이루어진 예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표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선사·고대사 부분은 해당 자료의 빈곤으로, 반대로 근현대사 부분에는 자료의 폭증이 문제이다. 그러나 이 책은 시대별·분야별 균형이 무난하게 잡혀있다. 편찬체제, 용어, 표현방식 등도 통일되고 비교적 잘 정리되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연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출판된 종합연표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물의 하나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연표가 종래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되고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곳과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중 몇 가지만 들어 보기로 한다. 역사의 발전에 따라 수록내용을 다양하게 확대시킨 것은 해당시기의 사료의 증가에 따라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록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외국란의 기사량이 비교적 많다. 어느 부분은 지나치다는 느낌도 든다. 외국란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수록해도 독자들은 이해할 것이다. 더구나 이 책이 ‘선사시대부터 2002년까지 한국사와 동양사·서양사를 아우르는 역사사전에 준하는 연표’라는 표현(속표지)은 도무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란에서 중복 기재하는 경우에 서술의 조율이

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각각인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또는 일본과의 관련사항에서 그리고 광복 후에는 미국과의 관련사항에서 그러한 사례가 산견된다. 광복 이후 국내란과 북한란의 기사 또한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수록된 부분이 발견된다.

하나의 예로 남북한 정부수립 기사를 보면 1948년 8월 15일 국내란 정치에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수립을 선포(하지, 미군정 폐지 발표)”라고 기술되었고 같은 해 9월 9일 북한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조직 김일성(金日成)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제6일 내각성원 발표,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朴憲永)·김책(金策)·홍명희(洪命喜)”라고 기술되었다(646~647쪽). 전자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지극히 소략하게 기술하면서 하지의 역할만을 드러낸 반면 후자는 북한의 정권수립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면서 김일성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시기와 분야의 담당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났다고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 검토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의 오류도 간간히 보인다. 예를 들어 ‘1945년 8월 16일 여운형 조선공산당(장안파) 발족(장안빌딩)’이라 하여, 이영 등이 조직한 장안파 공산당이 엉뚱하게 여운형이 관계된 것처럼 기술하였다. 오류는 아니더라도 표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B.C. 107년 이무렵 한사군의 설치에 따라 금속문화 전래’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나라에는 한사군 설치 이전에는 금속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한(漢)에 의해 사군이 설치됨에 따라 비로소 금속문화가 전래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금속문화’라는 용어도 애매하다.

그밖에 부록으로 수록한 한국 역대 각 왕조별 왕위계승도 백제편(736쪽)에 문주왕이 개로왕의 아들로 되어있다. 이는 삼국사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주왕은 개로왕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중론이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선행 연구결과를 엄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하는 예로써 대개 표나 통계를 다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적지 않다 ‘B.C. 500년

이무렵 공자(孔子)가 구이(九夷:朝鮮)에 가서 살기를 원함(14쪽)이나 ‘B.C. 218년. 이무렵 동이계의 창해역사(滄海力士), 장량(張良)과 함께 진시황을 박량사

(博浪沙)에서 저격(18쪽) 등이 연표기사로 더구나 국내란에 기재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록에 참고문헌의 소개도 필요한 것 같다. 위에 든 지적 때문에 이 한국사연표가 지닌 많은 학술적인 성과와 장점이 흐려지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 독자들이 이 연표를 보고 우리나라 역사의 대강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면서 사소한 몇 가지를 지적한 것이다.

근자에는 개인·단체·기관에서 각종 일지, 연표가 양산되고 글로벌시대를 상징하는 정보화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연표의 개념으로 이를 소화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아주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근본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학문분야에서도 이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역사학계도 그 예외가 아니다. 정보의 서비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일로에 있고 그 형태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문연에서 한국사연표를 편찬함에 있어서 종이책과 시디롬을 간행하고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일로써 한국사연표의 수록내용의 평가에 못지 않게 높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